

보도시점 2026. 09. 16.(수) 14:00 (2026. 09. 16.(목) 조간)

재학생·교직원·동문의 화합의 장, 한국폴리텍대학 축구대회 개최

- 전국 40여개 캠퍼스 재학생·교직원·동문 처음 한자리에 모여
- 직접 배운 방송 기술로 축구 경기 중계 및 드론 촬영 직접 맡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6일 아산캠퍼스에서 전국 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300여 명이 참여한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40여 개 캠퍼스로 나뉘어 있던 폴리텍 구성원이 하나의 운동장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 승패보다 '함께 뛰는 것'에 방점을 뒀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술교육에서 기술인교육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교양교육(직업공통 능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함께 땀 흘리는 경험을 통해 소통과 협업,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이번 대회는 그 방향을 강의실 밖에서 구현한 첫 사례다.

경기에는 전국 8개 권역*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 대표 120명이 권역의 이름을 걸고 출전했다. 지역과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며 '폴리텍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나눴다. 경기장 밖에서는 각 캠퍼스 학장과 교직원, 학생회 임원들이 응원과 교류를 이어갔다.

* 권역 캠퍼스: 서울정수, 인천, 춘천, 대전, 광주, 대구, 창원, 바이오(논산)

대회 현장은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펼치는 실습 무대이기도 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드론 항공 촬영 등 대회 영상 제작을 아산캠퍼스 방송미디어과 학생들이 기획부터 촬영, 송출까지 직접 담당했다. 수업에서 익힌 기술을 전국 구성원이 지켜보는 실제 행사에 적용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경기에 나선 선수들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박근중 한국폴리텍대학 총동문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온 선배들이 후배들의 땀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라며 "총동문회가 대학과 동문을 잇는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교류의 폭을 계속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과 협업, 책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라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듯, 함께 뛰고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이 기술을 넘어 사람과 현장을 함께 아는 기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현장사진 별도 배포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전략기획국 대외협력부	책임자	부 장	강영아 (032-650-6664)
		담당자	교 수	김준영 (032-650-6792)





- ▲ 한국폴리텍대학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에서 이철수 이사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8개 권역 대학 재학생 대표단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